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대구, 부산, 대전, 서울에 2백여명 참가 —

양축농가, 도계장, 유통상, 학자, 관계공무원 관심 집중



(오봉국 교수) (고마이 교수) (박영인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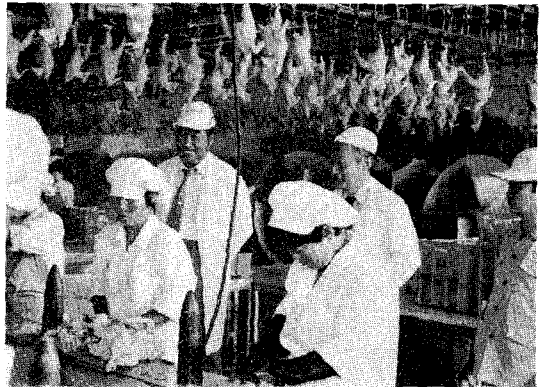
본회는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와 공동으로 미국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장 박영인)의 후원을 받아 부산, 대구, 대전, 서울등지에서 각각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고마이교수(교토산업대학)와 박영인지부장이 강사로 수고한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도입 조차기에서 현재까지의 발전상황, 문제점, 성공사례,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계열화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때를 맞추어 개최돼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7월 12일(목) 오후 대구 축협회의실과 14일(토) 본회 부산지부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사육자, 부화장, 도계장, 축협, 관계공무원등40여명이 각각 참석해 열띤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대전(유성) 신용협동조합 강당에서 18일(수) 오후에 개최된 대전세미나와 20일(금) 오후 미국문화원에서 개최된 서울세미나는 각각 50명, 80명이참석,높은 관심도와 육계산업계열화에 대한 여망으로 열띤 질의응답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육





△ 우리나라 현황파악을 위해 도계장을 방문(上)
본회의 감사패 전달(下)

계산업이 불안정해 모든 관련인들이 염려하는바와 같이 제도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기에 때를 맞추어 개최되어 관계공무원, 축협관계자, 유관단체관계자, 학계 및 연구계, 도계장관계자, 부회장, 사료공장 경영자, 생산농가의 양축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인 바있다.

한편 강사 고마이교수는 7월 9일 내한하여우리 양계산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6개 도계장외에 부회장, 사료공장, 육계농가, 닭고기 판매업소 등을 돌아보았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한국바이오희화학(주)(대표 김길원), 오진양행(대표 정진국), (주) 중앙계미칼(대표 김무진)에서 각각 협찬한 바있다.

초생추자웅 감별사시험

— 지난 7월 21일 축산회관 회의실—

전국 초생추자웅 감별사시험이 시험응시자, 감별학원장,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1일(토)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전에 시작된 감중은 응시자 87명중 이중옥의 21명이 합격했고, 고등시험에는 5명이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되었다.

이날 시험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별사시험

〈감중시험〉

- 산란계 초생추 200수, 감별시간 18분

정확률 97% 이상

- 결과 : 22명 합격

〈고등시험〉

- 육계 200수 및 산란계 300수 감별

각 100수당 제한시간 7분, 100수당 정확률 98%

- 결과 : 합격자 없음



기반조사요원 회의개최

— 지난 7월 16일, 30일 본회회의실—

전국의 각지역별 양계업계 현황 및 부회장 입란, 출하현황, 양계산물 시세전망 등을 위해 매



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7월중 기반조사요원 연석회의가 농수산부 관계관, 본회 황인옥전무를 위시한 집행부, 각지역 조사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과 30일에 각각 개최되었다.

각지역 조사요원들로부터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호남, 제주 등 전국의 부화장 입란현황 및 병아리 출하상황 조사와 지역 양계업계 현황 등을 통해 집행부에서 면밀한 자료분석으로 각 분과위원회 때 이를 발표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6월까지 병아리 가격 약세로 초생추가 많이 줄어 육계가격이 천백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들어 초생추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초생추 출하량이 21%감소했는데 그 요인으로 초생추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예측된다.

한편 본회의는 양계산물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7일 오전 9시 MBC-TV “김수미의오늘의 요리”에 계란요리를 방영토록 했는데 양계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앞으로는 자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지난 7월 6일자 한국일보에 「가족의 건강은 주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하의 5단 광고와 7월 20일자 격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7월 26일자 주

간매경에 각각 황금의 계란」 제하의 원색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밖에 MBC-TV 7월 27일 오전 9시 「오늘의 요리」시간을 통해 「계란 오므렛」 요리소개를 실시하였다.

이번 소비촉진홍보는 동원참치사가 협조하였다.

축산단체장 조찬회 개최

축산단체장 조찬회가 본회와 양돈, 낙농육우, 유가공, 육가공협회, 수의사회, 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축산학회 등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3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축산식품 관리행정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본회 상징마크도안 현상모집

양계산업의 도약을 위해 참신하고 새로운 상징아래 양계인의 일체감형성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는 상징 마크도안을 현상모집하고 있다.

도안은 시대적감각에 맞게 도안 채란, 육계, 부화, 감별 등 양계산업을 상징하고 양계인의 단합을 통해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복지사회구현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오는 8월 31일(금)까지 본회에 제출하면 된다.

○색 도 : 4색도 이하

○크 기 : 20cm × 16cm 이상

○응모마감 : 84년 8월 31일(금)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편집국 협회 마크현상모집 담당자 (☎ 752-6917)에게 문의하면 된다.